

## 학회소식

###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 교수)와 감사연구원(원장 박희정)은 지난 10월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벤틙스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에서 『공공조달에 대한 감사제도의 공법적 접근』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계인국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가 ‘독일의 공공조달과 감사제도’, 강명원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프랑스의 공공조달과 감사제도’,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공조달과 감사제도 비교’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일신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상훈 감사연구원 연구3팀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하였다.

###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 교수)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김성욱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18일 오후 1시 제주시 그라벨호텔 사려니홀·노꼬메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이 ‘자치분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

로 기초발제 하였다. 이진수(44·사법연수원 31기)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의 차등분권의 지향점’을, 신정규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법의 헌법적 함의’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법적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는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배원 부산대 로스쿨 교수,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한국부동산법학회(회장 김진 교수)

한국부동산법학회의 2019년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10월 12일 광운대학교 새빛관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포용성장과 주거복지를 위한 부동산법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후원하였다.

이날 학술대회 제1세션에는 김민석 전승실사이버대 교수의 ‘주거양극화에 대한 공법적 개선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진 전남도립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최명순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2세션에서는 이홍렬 부천대 교수의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거복지법제 방

안 검토' 발표와 토론이, 3세션에서는 이 경애 토지주택연구원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한국형사법학회(회장 류전철 교수)

한국형사법학회(회장 류전철 교수)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남대학교 진도자연학습장에서 2019년 추계 공

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특수절도의 행위태양이 모두 중첩된 경우 죄수문제 내지 적용범죄의 확정: 최준혁 교수(인하대)
-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에서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개념: 김태명 교수(전북대)

## 동 정

### 목영준 변호사,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중재분야의 대가인 목영준(64·사법연수원 1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목 변호사는 법조실무, 학술연구, 국제활동,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면서도 겸손과 중용의 미덕으로 법조 선후배로부터 존경과 애정을 받고 사회의 귀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 출신인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남원지원장, 대법원 초대 공보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6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29년간 공직자로 근무했다.

목 변호사는 법관으로서 사회변화에 걸맞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 대법원 판례의 논거를 생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법원의 공보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법조계에 대한 신뢰제고 및 법조계의 화합에 기여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서는 다수의 위헌결정 등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에 매진했다. 특히 간통죄, 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 헌법 가치 구현에 앞장섰다.

그는 꾸준한 학문연구 및 국제적 학술 교류를 통해 우리 사법의 국제화에도 기여했다. 우리나라에서 중재가 생소하게 취급받던 1977년부터 국제중재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중재분야에서 권위 있는 기본서로 평가받는 '상사중재법론'과 '상사중재법'을 발간했고, 수많은 국내외 논문을 발표해 중재법 분야의 선구자이자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